허공에는 못질을 못한다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④ 임제록의 명장면 쌍용쟁옥(雙龍爭玉)

부주(府主) 왕상시(王常侍)가 여러 관료들과 더불어 스님께 법좌에 오르시기를 청했다. 스님께서 법좌에 올라가서 말했다.

"산승이 오늘 상시가 굳이 청하니 어찌 강종(綱宗)을 숨기겠는가? 자, 전쟁에 나갈만한 장수가 곧바로 진을 치고 깃발을 꽂을 자가 있는가? 대중 앞에 증거를 보이시오."

어느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임제가 할(喝)을 했다.

스님이 절을 했다.

임제가 말하기를

"이 스님은 말을 나눌만 하구나."

누가 물었다.

"스님은 누구의 노래를 부르며, 종풍은 누구에게서 받았습니까?"

임제가 말했다.

"내가 황벽의 처소에서 세 번 질문을 했다가 세 번 두들겨 맞았느니라."

물은 스님이 무어라고 말을 하려 하자 임제가 할을 하고 때리면서 말했다.

"허공에 못질을 할 수 없느니라."

어떤 좌주가 물었다.

"삼승십이분교(三乘十二分敎)가 어찌 불성(佛性)을 밝힌 것이 아닙니까?"

임제가 말했다.

"몹쓸 풀은 호미질 할 필요가 없어."

좌주가 말했다.

"부처님이 어찌 사람을 속이겠습니까?"

임제가 말했다.

"부처가 어디 있나?"

좌주가 말을 못하자 임제가 말했다.

"왕상시가 있는 데서 늙은이를 망신주려고 그러는가?"

다시 말했다.

"어서 물러가. 속히 물러가라. 다른 사람 질문하는데 방해되겠어."

다시 말했다.

"오늘 이 자리는 일대사(一大事)를 위한 자리인데 다시 물어볼 사람 없는가? 빨리 물으시오. 하지만 여러분이 입을 열어봐야 일대사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소. 왜 그런가? 보지 못했는가? 석가세존이 말씀하셨어. 법은 문자를 떠나 있고 인(因)에 속하지도 않고 연(緣)에 있지도 않다고 했어. 여러분들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오. 상시와 관원들이 자기네 불성을 잊고 방황할까 두렵소이다. 그만하고 물러나겠소. 할을 한 번 하고 신근(信根) 모자라는 사람들은 끝까지 해 봐야 소용없소이다. 오래 서 있느라 수고하셨소."

임제가 하루는 하부(河府)에 갔더니 왕상시가 법을 청했다.

그때 마곡(麻谷)이 나와 물었다.

"대비의 천개의 손과 눈에 어느 것이 바른 눈인가?"

임제가 말했다.

"대비의 천 개의 손과 눈에 어느 것이 바른 눈인가? 빨리 말해라. 빨리 말해라."

마곡이 임제를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마곡이 앉았다.

임제가 앞으로 가까이 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마곡이 머뭇거리자 임제가 또 마곡을 자리에서 끌어 내리고 그 자리에 앉았다.

마곡이 밖으로 나가버렸다. 임제도 자리에서 내려왔다.

〈임제록〉의 이 대목을 가장 멋진 장면이라고 한다. 임제와 마곡이 나눈 대화를 두 마리 용이 여의주(如意珠)를 다투었다고 일본의 야마다 무몬(山田無文)이 말했다. 쌍용쟁옥(雙龍爭玉)이라 했는데, 임제를 알아야 알 수 있는 말이요, 임제를 모르면 알 수 없다고 했다.

이 장면의 숨은 뜻이 무엇일까? 모름지기 선의 참뜻은 말이나 행동 뒤에 숨어 있다. 결코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조계종 고시원장〉

대일여래, 극락교주 아미타불



세상 속 경전읽기

④ 삼신일불(三身一佛) 아미타불

삼신(三身)이란 붓다의 삼신을 말하니, 법(法)·보(報)·응(應) 삼신은 세친(世親)의 〈법화경〉 주역서인 〈법화론(法華論)〉에서 취한 천태종의 삼신이다.

여기에서 법신은 본래 있는 이체(理體)이고, 보신은 수행공덕의 과보로써 드러난 붓다의 지혜(실지·實智)이다. 보신을 둘로 나누면, 붓다 스스로 법락(法樂)을 누리는 자수용(自受用)보신과 초지 이상의 보살이 법락을 누리도록 하는 타(他)수용보신이 있다.

응신이란 응화신(應化身)이라고도 한다. 이지(理智)가 둘이 아닌, 곧 법보신(法報身)의 묘체(妙體)로부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나투는 몸이다. 이 응신을 둘로 나누면, 승(勝)응신과 열(劣)응신이다. 보살 초지 이상에 나투는 승응신이 위의 보신 중 타수용보신과 동일하다. 열응신은 성문·연각·범부를 위해 나툰다.

법신불이 곧 비로자나불이니 일체 모든 곳에 두루하다. 보신불은 곧 노사나불이니 정만(淨滿), 곧 청정하고 원만하다. 응화신불을 석가모니불이라 하니, 그 뜻의 번역은 도옥초(度沃焦)이다. 도옥초의 '옥초'란 연옥 위 바다 속에 있는 만류(萬流)를 흡입하는 바위산으로 곧 욕망에 불타는 중생을 의미하고, '도(度)'는 이러한 욕망에 불타는 중생을 제도하여 건네주는 것으로, 이 '도'와 '옥초'를 합성한 도옥초는 중생을 제도하는 붓다를 말한다.

친광(親光)이 짓고 현장이 번역한 〈불지론(佛地論)〉과 세친이 지은 〈유식론(唯識論)〉 등 법상종에서는 자성(自性)·수용(受用)·변화(變化)의 삼신을 말했고, 이는 각각 위의 법(法)·보(報)·응(應) 삼신과 유사하다.

법(法)·응(應)·화(化) 삼신은 〈최승왕경(最勝王經)〉에 나오는 것으로, 자성신과 자수용신을 합한 것이 법신, 응화신을 세분하여 타수용신을 응신이라 하고, 변화신을 화신이라 한다.

법(法)·보(報)·화(化) 삼신은 대승과 소승에 그 명칭이 통용되며, 다만 소승의 법신은 계(戒)·정(定)·혜(慧)·해탈(解脫)·해탈지견(解脫知見) 오품(五品)의 공덕을 법신이라 하고, 왕궁에서 태어난 붓다의 32상(相) 80수형호(隨形好)를 보신이라 하고, 원숭이, 사슴 등으로 화현(化現)함을 화신이라 한다.

진언종은 지수화풍공식(地水火風空識)의 6대(大)를 법신이라 하고, 이 6대는 현상과 사물이니만큼 법신에 현상과 사물을 갖추고 인격이 있으므로, 현교(顯敎)의 보화불(報化佛)과 같다. 그러나 이 6대는 서로 걸림이 없으므로 차별하기 어렵고, 식(識)을 제외한 전(前)5대를 자성신인 이법신(理法身) 곧 태장계의 대일(大日)여래라 하고, 제6의 식(識)대를 자수용신인 지법신(智法身) 곧 금강계의 대일여래라 한다.

기독교에서는 CE 381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성부(聖父)·성령(聖靈)·성자(聖子)의 삼위일체설을 의결 채택하였다. 이는 불교의 삼신불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각번(覺鐇)이 지은 〈오륜구자명비석(五輪九字明秘釋)〉에서는, 밀교의 입장에서 아미타불관과 정토관을 밝히며 아미타여래와 대일여래가 동체라고 하였고, 극락세계와 밀엄국토가 같은 곳이라고 하였다. 아래 그 대목을 인용한다.

"밀교 경전 중에 대일여래는 곧 극락교주 아미타불이다. 마땅히 알라. 시방정토는 모두 대일여래 법신불의 화토(化土)이며, 일체 여래는 그 모두가 대일여래 법신불로서 비로자나불이나 아미타불은 동체(同體)의 다른 이름이며, 극락세계나 밀엄(密嚴)국토 또한 이름은 달라도 한 곳이다."

금타 대화상과 청화 스님께서 주창한 '보리방편문(菩提方便門)을 통한 염불선(念佛禪)' 수행에서, 법보화(法報化) 삼신은 '우주의 총대명사인 아미타불'의 세 가지 측면이다. 따라서 삼신일불(三身一佛)인 아미타불이다.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⑩ 이해의 길 30

편견이 지혜로 전환돼야

〈識〉 〈智〉

마음이란 무엇인가? 그저 뇌의 작용에 불과한 것일까? 오늘날 이러한 비밀을 풀기 위한 연구가 심리학과 철학, 뇌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뇌가 오감(五感)으로 받아들인 정보를 바탕으로 사물을 인식한다는 사실이다. 같은 대상인데도 개인의 특성이나 경험, 주위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것도 뇌에 축적된 정보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같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치과의사는 치아를 먼저 보고, 미용사는 머리 모양에 관심을 갖게 된다. 자신도 모르게 말이다.

이처럼 우리는 뇌에 쌓인 정보를 통해서 대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기가 어렵다. 이 과정에서 사물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 왜곡 등이 쉽게 일어난다는 뜻이다. 예컨대 지인의 집에 놀러갔다가 거실에서 강아지가 똥을 누는 모습을 보았다면, 그 자리를 아무리 깨끗이 닦는다고 해도 더럽다고 여길 것이다. 내 마음에 변을 보는 강아지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 쉽게 앉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유식(唯識)'은 마음에 쌓인 정보를 통해 대상을 인식하는 우리들의 생생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모든 현상은 오직(唯) 마음(識)의 작용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一切唯心造)'는 말은 바로 이를 의미한다.

유식은 대승불교 중기에 유행한 사상이다. 주요 경전으로 유식의 핵심을 30개의 게송으로 정리한 세친(世親)의 〈유식삼십송(唯識三十頌)〉과 10명의 논사들이 이 책에 주석을 첨부한 〈성유식론(成唯識論)〉 등이 있다. 불성과 여래장이 마음을 청정심(淸淨心)으로 해석했다면, 유식에서는 이를 번뇌, 망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마음'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도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유식은 온갖 번뇌, 망상과 편견, 착각 등을 일으키는 중생들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구조로 되어 있다. 원인이 분명해야 치유도 쉬운 법이다.

유식에 의하면 우리의 마음은 표층의식과 심층의식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겉으로 드러나는 감각기관 즉 안식(眼識), 이식(耳識), 비식(鼻識), 설식(舌識), 신식(身識)을 전(前)5식이라고 하고 이들을 종합하는 의식(意識)이 제6식이다. 그리고 이기심의 원천인 제7 말나식(末那識)과 모든 행위의 저장 창고인 제8 아뢰야식(阿賴耶識)이 마음의 저 깊은 곳에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마디로 의식적인 인간의 행동은 무의식에 쌓이고 그곳에 저장된 에너지가 다음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유식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구조를 "현재의 행동이 종자에 쌓이고(現行薰種子) 종자가 현재의 행동을 낳는다(種子生現行)"고 설명한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사라지지 않고 종자, 즉 아뢰야식에 저장되었다가 그것이 원인이 되어 현재의 행위를 일으킨다는 뜻이다. 전날의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을 만큼 만취한 사람이 집을 잘 찾아오는 것도 종자에 저장된 에너지가 습관적으로 안내하기 때문이다. 수없이 집에 왔던 행위가 아뢰야식에 저장되어 있다가 현실에서 그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대상을 바라보는 인식 또한 종자라는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뱀은 징그럽고 돼지는 욕심 많은 동물이라는 생각 역시 종자에 저장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 것에 불과하다. 그저 그렇게 생긴 것뿐인데, 그들을 바라보는 인간의 눈이 심하게 왜곡된 것이다. 유식에서는 이러한 편견에서 벗어나 지혜를 얻어야 한다(轉識得智)고 강조한다. 편견(識)이 지혜(智)로 전환되어야 비로소 색안경을 벗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유식에 '곰보도 보조개'라는 말이 있다. 누가 봐도 곰보인데, 그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보조개로 보인다는 뜻이다. 이와는 달리 오늘날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를 미워하면서 보조개마저 곰보로 보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랑과 자비는 이때 나오는 축복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부처님의 마음을 빗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 인 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